지역 소식통

부안군,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 실시

부안군은 오는 15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주민의 건강 식생활 및 걷기 실천율 감소 등 비만 관련 지표 악화에 따라 비만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6.3%로 약 2명 중 1명이 비만에 해당되며 남성은 30~40대에서, 여성은 폐경 이후인 50대 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비만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을 알수 있다.

이에 부안군 보건소는 오는 15일 부안터미널 사거리 등에서 비만예방 가두 홍보를 시작으로, 노인회 부안군지부와 부안 제일고등학교를 방문 나의 체중 바로알기 비만예방 건강 체험관을 운영 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집중호우 대비 산림 내 위험지구 일제점검

정읍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재해 예방을 위해 산림 내 위험지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7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163개소, 사방댐 83개소, 임도 42개소 등 총 28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시는 급경사지·임도·사방사업지 등을 점검한다. 또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제거하고 또 배수시설을 정비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제거단 5명,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 임도관리단 1명 등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피장소를 정비하고, 임도(산길) 배수로 정비와 쓰러진 나무 등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사방댐 내 잡목은 모두 제거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복분자&수박축제' 열려

16일부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시 전북 고창군에서 복분자와 수박을 테마로 '제20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싱그러운 신록으로 물든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선운산도립공원은 곳곳에 기암괴석이 웅장한 풍경을 그려내고 경관이 빼어난 울창한 숲속에 천년고찰 선운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축제기간 중에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수박과 고창복분자로 만든 화채를 시식할 수 있는 코너와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수박 빨리먹기, 수박 빨리 나르기, 장애물 3종경기 등이 진행되며, 품질 좋은 농산물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된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DJ와 함께하는 더워(The War) 물총싸움으로 관광객들과 함께 한바탕 물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며, 개막식에는 찬또배기 이찬원과 인간 녹음축음기 조명섭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 세계유산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축제를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쉬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

정읍시,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 직불금 추가지원 · 교육등 제공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뜻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해당 사업장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5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지정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축산악취 개선사업·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추진

정읍시, 충전시설 옮기는 공동주택에 이전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다.

정읍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이전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돼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중앙부처에서도 전기차 화재 피해 저감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질식소화포와 이동식침수조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시설은 총 75대다. 시는 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시비 2억14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급속충전기는 최대 2000만원, 완속충전기는 300만원의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8일까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설치를 당부드린다"면서 "전기차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시정방침이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로 표현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진서면 구름호수마을 '산촌마당 캠프' 성황리 마쳐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진서면 구름호수마을은 산촌마당 캠프를 진서면 구름호수마을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부안군 외 도시민 가족 5팀씩 신청접수를 받아 6월 3일(토)~4일(일), 6월 10일(토)~11일(일) 1박 2일 일정으로 총 2회 진행하였고,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농촌문화 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시민에게 농촌의 넉넉한 인심과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도농교류의 장을 펼쳤다.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 사업은 전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앞마당, 마을회관, 모정 등을 캠핑장소로 제공, 찾아오는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도농교류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다슬기 잡기 체험, 삼색 소금 만들기 체험, 항아리 바베큐 파티, 미니 영화관, 불꽃놀이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했다.

캠프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깨끗한 자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맑은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모든 프로그램이 가족들에게 유익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생각만 하고 있던 시골 프로그램을 타인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깨끗한 농촌과 따뜻한 부안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하남선)은 "부안에서 처음 진행한 산촌마당 캠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민 가족분들이 찾아와 정말 기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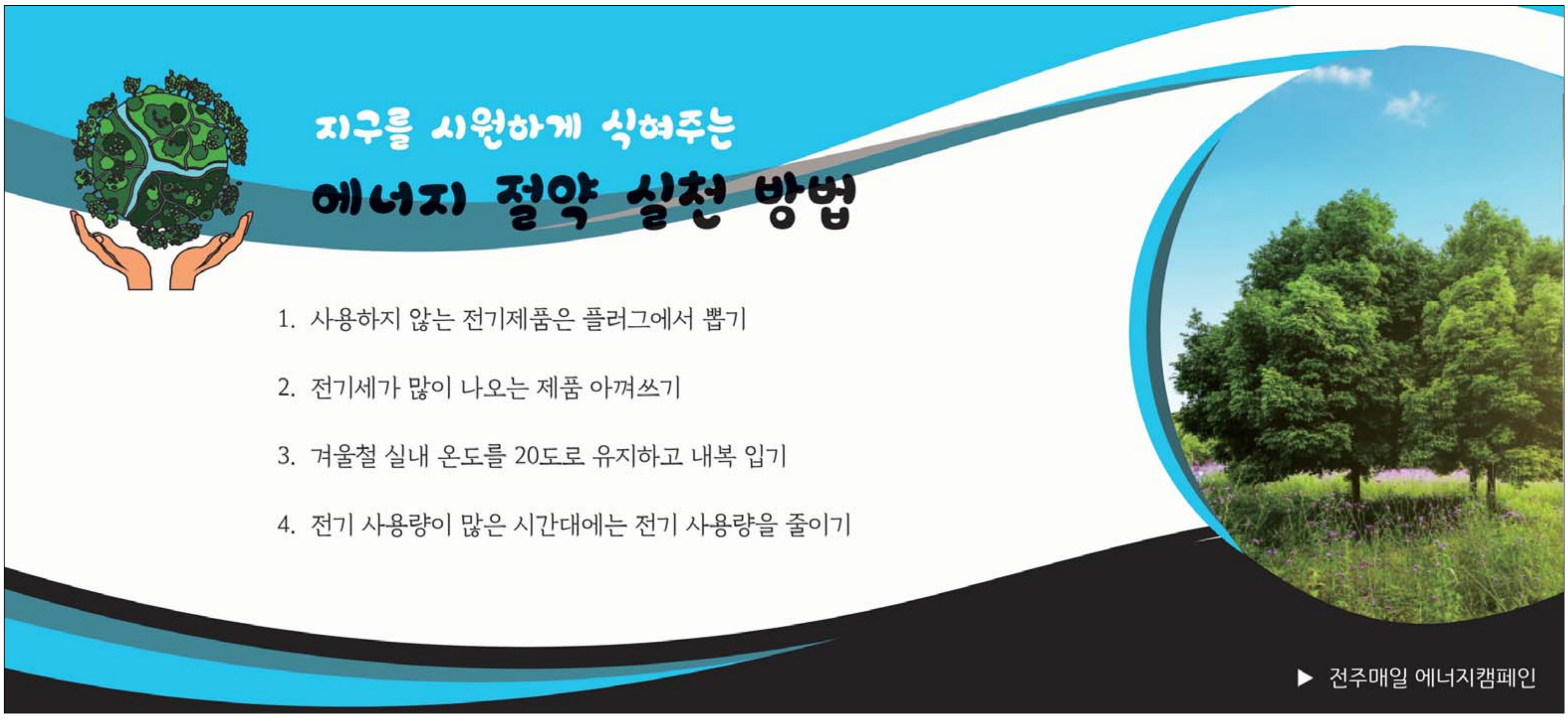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경신 의원, 임종훈 의원, 오세환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의원별 군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경신 의원은 농어민 이동권 보장대책, 고수면 소재지 도시가스 확대 시행, 사계절 전천후 스마트 에어돔 도입 등에 관련된 질의를 했고, 임종훈 의원은 고창갯벌 보존과 활용에 따른 대표 수산물 육성과 특구지정 문제, 바지락 공동브랜드 개발과 먹자골목 조성 방안, 마을입구 표지석 태양광 LED 방식 활용 등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오세환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와 밀원 숲 조성 문제, 미당 시문학관 명칭 변경 등 친일잔재 처리 문제, 대성고등학교 활용방안 및 공용터미널 폐업 시 대책(흥덕, 해리, 대산)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고창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며,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